

# 광주시, 동별 자원순환 챌린지 연다

## 신규 시책 발굴·우수사례 확산... 행정·환경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광주광역시시는 단독주택·원룸 등 밀집 지역의 자원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2026년 광주형 자원순환 챌린지' 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자원순환 도전 잇기(챌린지)는 지역 9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각 센터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동별 여건에 따른 맞춤 시책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통해 공동주택에 비해 분리배출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분리배출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도전 잇기(챌린지) 종료 후 최종 평가를 진행, 우수 행정복지센터 20곳을 선정, 대상 수상 센터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는 ▲우리동네 맞춤 시책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자원순환 관련 업무 성과 평가 등 3개 부문에서 총 17개 지표로 진행한다.

올해 평가 지표에는 종량제부투 내 음



식물류폐기물 등 혼합배출 금지를 위한 주민 인식 개선 자료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 각 동 특성에 맞춘 시책 발굴을 강화하고 지난해 우수사례인 '교육기관 연계 자원순환 시책'을 확산하기 위한 지표도 중점 반영했다.

광주시는 5월부터 도전 잇기(챌린지) 운영을 본격화하고 6월부터는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책별 중간 점검과 맞춤형 평가(피드백)를 제공할 방침이다. 1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 공유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컨설팅단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함께 행정·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많은 행정복지센터들이 참여해 자원순환 문화가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 북구, 드론 선도 도시 자리매김... 드론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

##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레저문화 확대 등 드론 기반 도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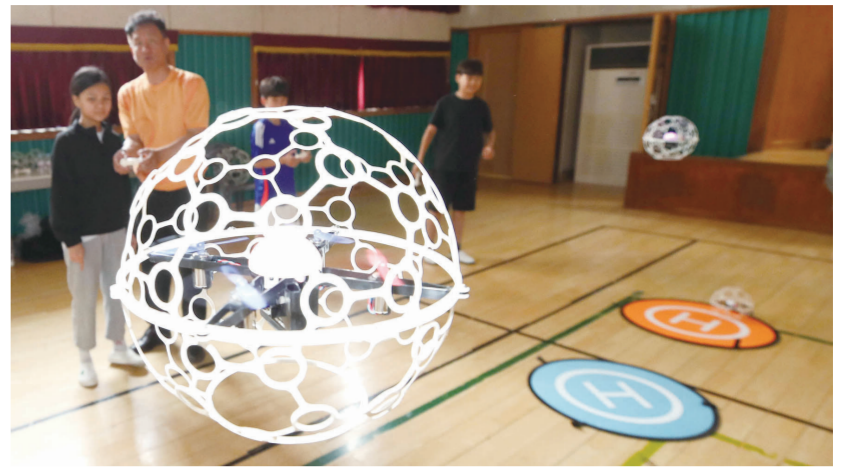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전국 드론 1번지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체계도 높은 사업들을 추진한다.

북구에 따르면 '2026년 드론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고 드론 문화 확산을 위한 분야별 시행 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드론으로 미래를 실현하는 첨단 북구'를 목표로 ▲안전한 비행환경 조성 ▲드론 레저문화 확산 ▲기술개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공공분야 드론활용 확대 등 4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북구는 광주 유일 드론 인프라인 드론공원과 실기시험장을 상시 운영해 주민 누구나 기초부터 항공촬영까지 단계별 드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드론 인력 양성과 레저문화 확산에도 힘을 신는다. 이달부터 초·중·고, 어르신,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드론교실을 운영하고 오는 9월에는 '북구 청장재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해



드론 문화의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첨단 산업과 석곡동 일원 28.97㎢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드론 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행정 전반에도 드론을 활용한다. AI 산물감지 시스템과 드론스테이션, 열화상 CCTV가 연계된 '드론-ICT 기반 산물관리 플랫폼'을 연중 운영해 산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외에도 지적 조사, 시설물 안전 점검, 생태환경 모니터링 등 행정업무 곳곳에 드론을 도입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드론은 미래 산업을 넘어 행정과 일상 전반을 혁신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기술 실증을 통해 북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 유가·물가 불안 대응 '비상경제대응 TF' 확대 운영

## 생필품 수급 안정·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경제 총력 대응

광주 동구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 TF'를 확대 운영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7일 부구청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유가 상승과 생필품 공급 불안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기존 1단 2팀 체계에서 ▲민생물가안정 ▲석유가격안정화 ▲에너지

절약지원 ▲취약계층지원 등 4개 팀 체계로 확대 개편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동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석유화학 기반 생필품의 수급 불안에 대비해 3~5개월분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1인당 5매로 판매량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판매소 공급 방식 개선을 추진하며 사재기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또한 생필품가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동구랑페이)·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카드수수료 지원(5월 예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골목상권 소비 촉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가 급등에 대응해서는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등을 시행해 에너지 사용 절감과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철수 기자

# 광주 남구, 구직 포기 청년에게 '다시 기회를'

## 동기 부여·역량 강화까지 맞춤 처방 제공

광주 남구는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구직활동을 중단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처방과 함께 참여 수당을 제공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남구는 8월 '취업난과 심리적 위축'으로 구직 의욕을 잃은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중순부터 단순 취업 알선이나 단기 회복부터 직무 역량 강화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면서 "사업 진행에 앞서 프로그램에 함께 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남구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국비를 포함 사업비 3억 4,794만원을 투입해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39세 사이 청년 가운데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이다.

또 보호 아동 종료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과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

들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기간과 청년들의 개인 상황을 고려해 5주와 15주, 25주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1대 1 밀착 상담을 비롯해 자신감 회복 등 동기부여, 직업 체험 및 직무 교육,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까지 다채롭다.

남구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참여 수당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과 취업 등 성과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채일 기자

# 광주 서구, "필요한 물품, 가까운 곳에서 받는다"

## 공유서비스 '퀵 셰어' 운영...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공유센터로 배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동형 물품공유 서비스인 '퀵 셰어(Quick Share)'를 본격 운영한다.

서구는 현재 화정2동, 화정4동, 동천동, 농성1동, 서창동 등 관내 5개소에 물품공유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며 주민 누구나 생활용품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퀵 셰어 서

비스는 주민이 물품공유센터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물품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가장 가까운 공유센터로 물품을 이동·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여러 센터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생활권 내 가까운 거점에서 편리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유 대상 물품은 텐트, 그늘막, 캠핑의자, 테이블, 웨건, 빔프로젝터 등 주민 수

요가 높은 캠핑·레저용품과 생활공구 등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제공하며, 이용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 물품을 운송하는 배달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홍보도 강화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구는 물품공유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의 재사용을 활성화하며 주민 간 나눔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생활밀착형 공유경제 모델'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박석우 기자

# 전남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본격 운영

## 155개 강좌 2천64명 확정... 전문 강사가 수업 진행

전라남도가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배우도록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을 2026년 전남형 평생학습을 본격 운영한다.

전남형 평생학습은 도민이 10명 이내의 팀을 만들어 원하는 장소와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직접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시설이 멀어 참여가 어려웠던 농어촌 지역 주민도 집이나 마을회관 등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전남도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한다. 강좌는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에 돕는 직업교육 ▲건강·취미·인문학 등 생활교육 ▲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경력단절 도민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24개 강좌에 1천86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7명이 취·창업에

성공하고 30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만족도도 95.44%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1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의를 거쳐 131강좌에 1천750명을 지원을 확정하고, 3월 2차 신청을 받아 총 155개 강좌에 2천64명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강석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까지 배움을 전달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 2026 나주 방문의 해

